

국문초록

미국 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소수 인종 가운데 라틴아메리카 이민자와 멕시코 출신 아메리카인을 포함하는 라티노의 비율은 1970, 80년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이후 흑인 인구수를 넘어설 정도에 이르렀다. 라티노가 미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비단 인종 차별이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모국어가 스페인어라는 점에 기인한 언어적 갈등을 포함한다. 이중언어나 단일언어나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중언어주의자들은 다양성의 가치를 내세워 소수 민족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단일언어주의자들은 사회통합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맹점은 편익과 효용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관점이나 이익 집단의 세력을 확장을 위한 정치적 관점에 치중해 있다는 것이며, 정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회 구성원 당사자의 인간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두 언어를 병행하거나 하나의 언어로 전이되는 과정 속에서 화자의 마음속에 어떤 정서와 태도가 나타나는지 라티노 화자의 성장기적 자서전을 통해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작품은 리처드 로드리게스(Richard Rodríguez, 1944~)의 『기억의 허기: 리처드 로드리게스의 교육 *Hunger of Memory: The Education of Richard Rodríguez*』과 아리엘 도르프만(Ariel Dorfman, 1942~)의 『남을 향하며 북을 바라보다 *Heading South, Looking North: A Bilingual Journey*』이다. 두 작품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디아스포라적 상황에서 느끼는 정체성 갈등을 언어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집필한 자서전이다. 리처드 로드리게스의 경우 취학 당시 영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정규 교육을 마치고 명문대에 입학해 박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동화에 성공했으며, 도르프만 역시 경제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을 수차례 오가며 영어와 스페인어를 습득하였다. 이처럼 두 화자는 공통적으로 스페인어와 영어

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중언어 상태에서 극심한 정체성 갈등을 겪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중언어 상태의 정체성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이론을 기반으로 스페인어와 영어에 특정 사상과 감정이 앵커링(anchoring)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로드리게스와 도르프만이 거쳐 온 언어와 정체성의 변화를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해 볼 것이며, 이들이 새로운 언어의 습득을 통해 기존의 언어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반응을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개념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어와 영어의 경계지대에서 두 화자가 경계넘기를 시도하며 정체성을 기획하는 과정과 두 언어가 야기하는 정체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언어적 메스티사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로드리게스와 도르프만의 내면에는 이중언어 상태에서 단일언어화자로 귀결되고 싶은 경향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라티노의 이중언어 구사에 관련된 문제가 기존에 제기되었던 교육 여건이나 학습 능력의 차원뿐 아니라 개인의 의식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로드리게스와 도르프만의 이중언어 상태에 점철된 고뇌와 갈등은 경계지대에서 메스티사헤 정체성을 강요받는 라티노들의 실천적, 인식적 어려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남길 것이다.

주요어 : 리처드 로드리게스, 아리엘 도르프만, 이중언어, 메스티사헤
학 번 : 2007-22694